

코로나19를 극복한 베트남

13번째 하노이 소식

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이사하심



양승룡의 어머니 김정인권사님께서 지난 5월 20일 93세에 하늘나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시며, 북한에서 남한으로 월남하셨고,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하여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시며 사셨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시고, 많은 이웃들을 섬기셨으며, 어머니 장학회를 조직하여 오랫동안 많은 신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4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셨으며, 10 손자 손녀를 두셨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셨고, 지도력과 베품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70세에 네팔에 오셔서 네팔 사역자들과 함께 히말라야를 등반을 하였을 때, 단체로 조난을 당하여 3일을 해발 2,200 m 산 위에 묶여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셔서 재미난 얘기(개그)도 하시고, 로봇 춤을 추시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아버님 아시면 안 된다'고 하시구요. 저희 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을 나가지 못하여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둘째 경모가 저희 부부를 대신하여 방문하는 지인들을 훌륭히 맞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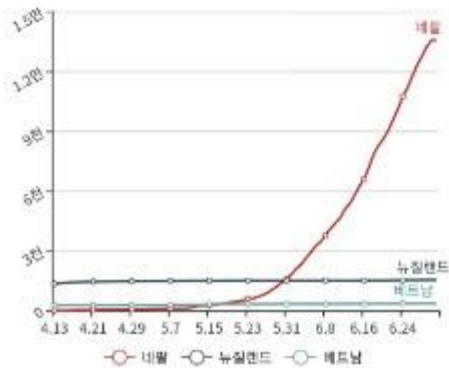
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로 경남 산청호국원에 모셔짐으로 어머니도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장례일정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조문과 위로 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부재 가운데 모든 장례절차를 치르신 가족들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세계 국가별 누적 추이

※ 확진자: 10,609,209명, 사망: 514,405명, 완치: 5,020,302명



베트남은 지난 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지역 사회 감염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 자 355명에 사망자 한 명도 없는 방역 모범 국이 되었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으나, 학교와 거의 모든 사회 활동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은 9월 16일까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돌아오는 비행 편은 아직 막혀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있는 뉴질랜드도 지역사회 발생이 거의 2 개월 간 없어서 정상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네팔은 한 달 전부터 급격히 확산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팔은 초기에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역을 잘 하였으나, 인도가 봉쇄를 하면서 인도에 갇힌 네팔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으면서 코로나를 가지고 네팔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나라가 급격히 퍼지는 것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방역, 의료시스템이 약한 네팔이 경제난으로 나라를 더 봉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지 우려가 됩니다.

영어회화클럽

베트남에 봉쇄가 풀리면서 아내가 봉사하는 영어회화클럽(Spotlight)이 다시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영어도 배우지만 동시에 성경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교회를 찾아오는 참석자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기독교사회(CMFV)



시작된 지 2년 반 만에 새로운 임원진 선출을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자원하는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였습니다. 60대 임원진

에서 40대로 급격한 세대교체가 있었습니다. 세대교체가 되자마자 새로운 임원진들은 로고를 만들고,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SNS를 통한 모임 광고와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의료인들 사이에 아무런 교제가 없던 베트남에 기독교사들 교제권이 형성되고,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말에 의료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10월에는 제 3회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호스피스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병원 설립



호스피스병원 설립을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준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을 위한 법률 자문을 위하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무엘 변호사는 현지교회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한국 한동대학교 한동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변호사가 되어서 베트남의 한국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 한국어가 능숙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병원 사역에 헌신한 2명의 베트남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아직 민간에서 하는 호

스피스병원이 없어서, 적지 않은 준비와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족 소식

저희 부부는 매우 더운 하노이 여름 기후(낮 기온 38도, 체감온도 46도)로 습식 사우나 안에서 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건강하게 여름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시골 쪽에 있어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집세가 저렴하고,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코트가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이웃 마을의 정원이 있어, 거의 매일 수영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큰 아들 진모 & 다은 부부는 10월 출산을 준비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경모는 코로나19로 비행이 많이 줄어 어려웠지만 7월부터 다시 비행이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셋째 인모는 코로나19로 이번 학기 전체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였으며, 인터넷으로 기말고사를 7월 3일 다 마쳤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그룹으로 공부하는 대신 집안에서 혼자서 한 학기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함께 손 모아주세요

1. 베트남 기독교사회가 잘 성장하게 하소서
2. 호스피스병원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3. 신경희의 한국어강의, 영어회화 클럽, 감각교육 책 제작을 통하여 주를 증거 하게 하소서.
4. 한인 디아스포라 목상 운동과 한글 매일성경 발행이 잘 진행되도록 하소서
5. 진모 & 다은 부부가 믿음의 멘토들과 공동체를 만나게 하소서
6. 경모가 진로와 결혼과 삶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두려움 대신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소서
7. 인모가 본인의 믿음의 변화를 위해 새로운 교회를 찾는 일과 인턴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준비를 잘 하게 하소서

2020년 7월 5일

양승봉, 신경희 드림